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8. 22. ~ 08. 28.

전남농업정보

99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배추 · 무 생산, 출하, 가격전망
- 포도 · 복숭아 생산, 품질, 출하, 가격전망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골드키위 수출규격품 생산, 현장 맞춤형 컨설팅
- 올해 수확한 국산 배도 호주 수출 가능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절화작약 건식 저장과 보존제 처리방법
- 벼 조기재배 수확시기 앞당겨야 품질 우수

정책동향

- 전남도, AI 청정지역 유지 방역관리 강화
-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일제 공동방제 실시

사업신청 및 홍보

- 스마트 팜 선배들의 성공노하우를 전합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고,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이 있겠음
- ▶ 기온은 평년보다 전반에는 높겠으나, 후반에는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6~14mm)보다 적겠음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배추·무 생산, 출하, 가격전망
- ▶ 포도·복숭아 생산, 품질, 출하, 가격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2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4

- ▶ 여수시, '방풍 초콜릿' 관광객 입맛 사로잡는다
- ▶ 순천시, 하늘아래 첫 쌀 '순천햅쌀' 판매 개시
- ▶ 광양시, 고품질 매실 생산 위해 전정기술지원단 운영
- ▶ 담양군, 갓 수확한 '대숲맑은 조기 햅쌀'로 한가위 선물 걱정 끝
- ▶ 고흥군, 전국 최초 무인기(드론) 이용 무상방제 실시
- ▶ 장흥군, 가뭄과 사투... 농업용수 비상급수
- ▶ 강진군, 벌 타액 이용한 프로폴리스 방제
- ▶ 전남도, 영암 뚝은감 가공산업 활성화 나선다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2

- ▶ 골드키위 수출규격품 생산, 현장 맞춤형 컨설팅
- ▶ 화순군, 기업 베트남 진출 길 열려
- ▶ 올해 수확한 국산 배도 호주 수출 가능
- ▶ 김제 지평선배, 올해 첫 수출길 올라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6

- ▶ 절화작약 건식 저장과 보존제 처리방법
- ▶ 비파 대방 품종의 자반증 예방을 위한 봉지씌우기 효과
- ▶ 벼 조기재배 수확시기 앞당겨야 품질 우수
- ▶ 우리 쌀의 진화, 맛있는 쌀! 건강에 좋은 쌀!
- ▶ 멀티콥터(드론), 콩 병해충 방제 해결사 역할
- ▶ 노지고추 유인망 재배로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량은 늘리고
- ▶ 한입에 쏙! 작은 사과 루비에스를 소개합니다
- ▶ 축산연구소, 최소 사육기반 조성에 본격 나서
-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해피굿팜 운영 교육 실시
- ▶ 2016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 중간평가회 개최

❁ 정책 동향 40

- ▶ 전남도, AI 청정지역 유지 방역관리 강화
- ▶ 전남도, 김영란법 관련 농업축산분야 대책 마련
- ▶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일제 공동방제 실시

▶ 중국 조미료시장을 공략하라

▶ 대만 내 한류 인기... 한식과 K-Food 뜬다

▶ 프랑스, 원산지표기법 의무화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8. 22.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지난 금요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였으나 장 막판 보합세를 보이며 마감함. 풍부한 국제 공급이 지속되고 있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 금요일 0.7% 상승하여 부셸 당 \$3.43에 마감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금요일 미국 중서부 지역에 내린 비로 인해 전일 대비 0.5% 하락 마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 스마트 팜 선배들의 성공노하우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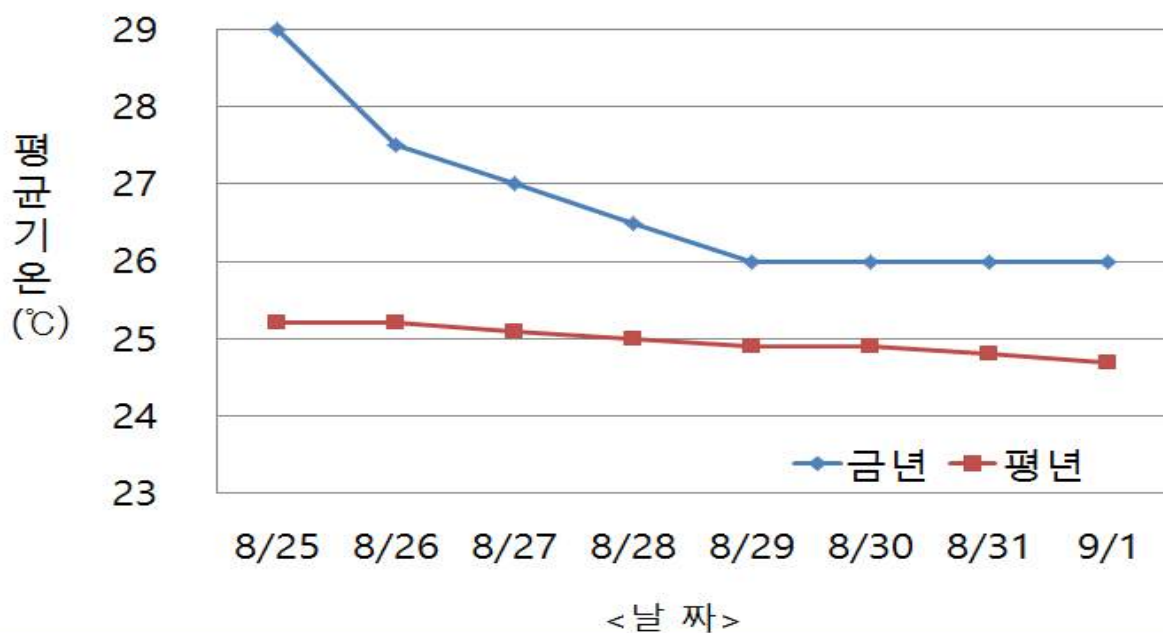
▶ 맛있고 건강한 쌀 가공식품을 집에서!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6.8	25.0	1.8	30.9	29.4	1.5	22.6	21.5	1.2	8.7
8. 25.(목)	29.0	25.2	3.8	34.0	29.6	4.4	24.0	21.8	2.2	8.6
8. 26.(금)	27.5	25.2	2.3	32.0	29.6	2.4	23.0	21.7	1.3	9.8
8. 27.(토)	27.0	25.1	1.9	31.0	29.6	1.4	23.0	21.6	1.4	9.6
8. 28.(일)	26.5	25.0	1.5	30.0	29.4	0.6	23.0	21.5	1.5	8.1
8. 29.(월)	26.0	24.9	1.1	30.0	29.4	0.6	22.0	21.4	0.6	8.8
8. 30.(화)	26.0	24.9	1.1	30.0	29.4	0.6	22.0	21.3	0.7	7.8
8. 31.(수)	26.0	24.8	1.2	30.0	29.3	0.7	22.0	21.3	0.7	8.3
9. 01.(목)	26.0	24.7	1.3	30.0	29.1	0.9	22.0	21.2	0.8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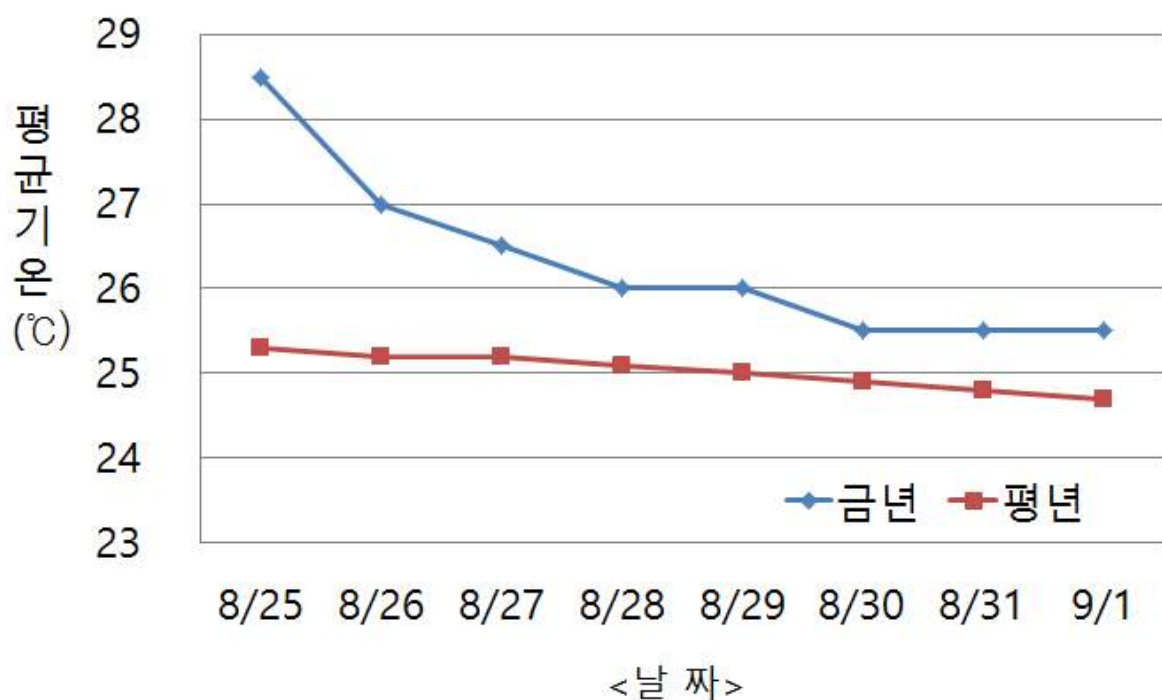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6.3	25.0	1.3	29.9	29.0	0.9	22.8	22.1	0.6	7.8
8. 25.(목)	28.5	25.3	3.2	33.0	29.2	3.8	24.0	22.4	1.6	7.4
8. 26.(금)	27.0	25.2	1.8	31.0	29.2	1.8	23.0	22.4	0.6	8.4
8. 27.(토)	26.5	25.2	1.3	30.0	29.2	0.8	23.0	22.2	0.8	8.4
8. 28.(일)	26.0	25.1	0.9	29.0	29.0	0.0	23.0	22.2	0.8	7.4
8. 29.(월)	26.0	25.0	1.0	29.0	29.0	0.0	23.0	22.1	0.9	6.8
8. 30.(화)	25.5	24.9	0.6	29.0	29.0	0.0	22.0	22.0	0.0	6.2
8. 31.(수)	25.5	24.8	0.7	29.0	28.8	0.2	22.0	21.9	0.1	8.6
9. 01.(목)	25.5	24.7	0.8	29.0	28.6	0.4	22.0	21.8	0.2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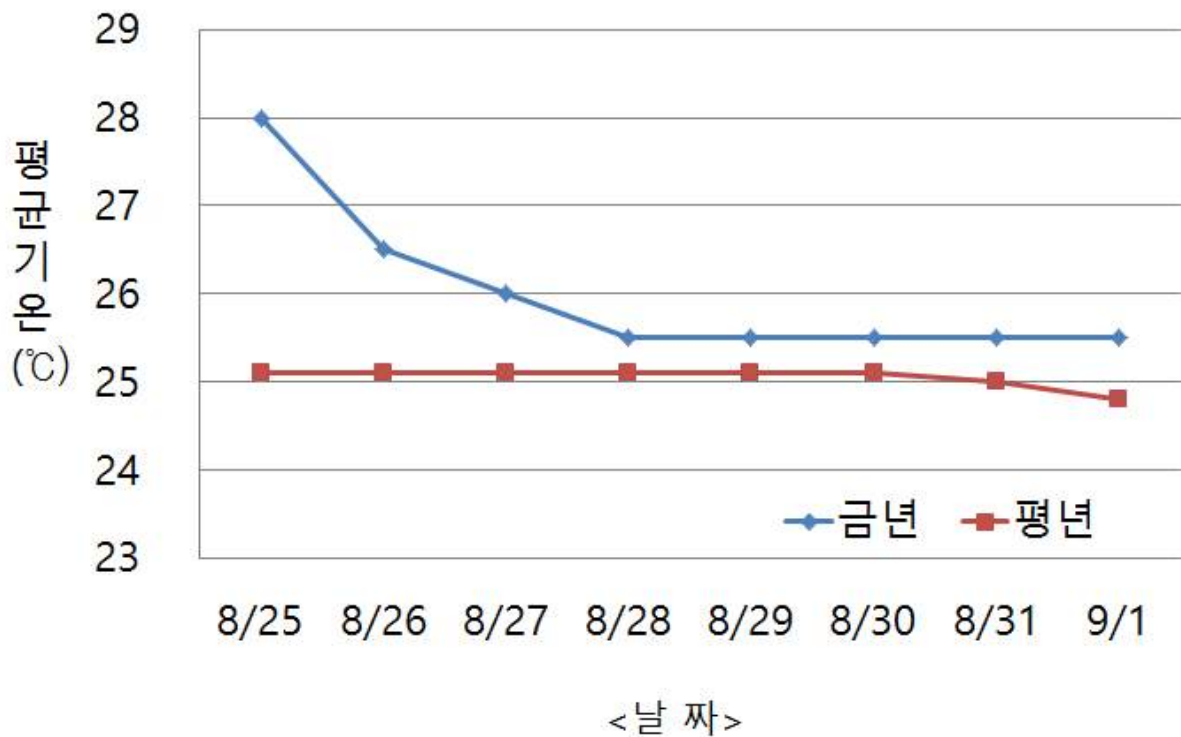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6.0	25.1	0.9	28.9	28.2	0.7	23.1	22.6	0.6	8.4
8. 25.(목)	28.0	25.1	2.9	32.0	28.1	3.9	24.0	22.7	1.3	8.1
8. 26.(금)	26.5	25.1	1.4	30.0	28.2	1.8	23.0	22.7	0.3	8.1
8. 27.(토)	26.0	25.1	0.9	29.0	28.2	0.8	23.0	22.7	0.3	8.7
8. 28.(일)	25.5	25.1	0.4	28.0	28.2	-0.2	23.0	22.6	0.4	8.1
8. 29.(월)	25.5	25.1	0.4	28.0	28.3	-0.3	23.0	22.5	0.5	8.1
8. 30.(화)	25.5	25.1	0.4	28.0	28.3	-0.3	23.0	22.5	0.5	7.7
8. 31.(수)	25.5	25.0	0.5	28.0	28.1	-0.1	23.0	22.4	0.6	9.1
9. 01.(목)	25.5	24.8	0.7	28.0	27.9	0.1	23.0	22.3	0.7	9.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배추 생산, 출하,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고랭지배추 생산량 지난해 대비 감소

○ 고랭지배추 추정생산량은 15만 6천~16만 3천톤으로 지난해보다 9~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랭지배추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10a, 천톤)

구 분		재배면적	단 수	생산량
2016년		4,436~4,539	3,525~3,594	156~163
2015년		4,721	3,775	178
평 년		5,119	3,662	187
증감률(%)	전년대비	-6 ~ -3.8	-6.6 ~ -4.8	-12.2 ~ -8.5
	평년대비	-13.3 ~ -11.3	-3.7 ~ -1.9	-16.6 ~ -13

□ 출하전망 : 8월 고랭지배추 출하량 지난해보다 감소

○ 8월 고랭지배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8월 출하면적은 정식면적 감소로 지난해보다 6% 감소하고, 단수는 7월 기상 악화로 지난해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8월 가격은 지난해와 지난달보다 높을 전망

○ 8월 배추 10kg당 도매가격은 고랭지배추 산지 출하량이 지난해 동월 대비 12% 감소하여 지난해(6,800원)과 지난달(6,910원)보다 높은 9,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8월 상·중순 가격은 출하량 감소폭이 커 7월 하순(7,780원) 대비 상승세를 유지하나, 하순에는 작황이 좋아 상·중순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 생산, 출하,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고랭지무 생산량 지난해 대비 6~8% 감소

○ 금년 고랭지무 생산량은 5만 ~ 5만 1천톤으로 지난해보다 6~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랭지무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10a, 천톤)

구 분		재배면적	단 수	생산량
2016년		1,732	2,862~2,925	50~51
2015년		1,920	2,800	54
평 년		1,897	2,809	53
증감률(%)	전년대비	-9.8	2.2~4.5	-7.8~-5.8
	평년대비	-8.7	1.9~4.1	-7~-4.9

□ 출하전망 : 8월 고랭지무 출하량 지난해보다 감소

○ 8월 고랭지무 출하량은 단수가 2% 증가하나, 출하면적이 10% 감소하여 지난해보다 8%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9월 고랭지무 출하량도 재배면적 감소로 지난해보다 14%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8월 가격 하순으로 갈수록 상승할 전망

○ 8월 무 상품 18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고랭지무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11,380원)과 평년(11,720원)보다 높은 13,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9월 무 가격은 고랭지무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7,700원)보다 높으나, 추석 이후 수요 감소로 지난달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숭아 생산, 품질, 출하, 가격전망

□ 생산전망 : 생산량 전년보다 17% 증가 전망

-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17% 많은 27만 9천톤으로 전망된다.
- 중부지역의 수정불량과 전국적인 세균성구멍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증가폭이 커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천도계 생산량은 저온피해가 심했던 전년보다 20% 증가하고, 유모계 생산량은 재배면적 확대로 1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숙기별 생산량은 조생종의 경우 전년보다 18%, 중·만생종은 각각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품질전망 : 8월 복숭아 품질 전년보다 좋을 듯

- 8월에 출하될 복숭아 품질은 생육기 기상이 양호하여 크기와 당도, 설탕 모두 전년보다 좋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하전망 : 8월 이후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8월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5%, 9월 이후는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8월 천중도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8월 천중도(유모계)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만 9천원)보다 낮은 상품 4.5kg 상자에 1만 7천~1만 9천원으로 전망된다.

포도 생산, 품질, 출하, 가격전망

□ 생산전망 : 올해 포도 생산량 전년보다 6% 감소 전망

- 올해 포도 생산량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생육이 양호하지만, FTA폐업지원으로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보다 6% 감소한 24만 4천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품질전망 : 8월 포도 품질 양호할 듯

- 8월에 출하될 포도의 품질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기온이 높고 일조량도 많아 당산비와 착색상태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출하전망 : 8월 출하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8~9월 포도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각각 6, 4%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생육기 온도가 높고 일조시간이 증가하여 포도 수확시기는 전년보다 5~7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가격전망 : 8월 포도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8월 포도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대체과일인 복숭아·자두 출하량이 많아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8월 캠벨얼리 도매가격은 전년(1만 4천원)보다 높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4천~1만 6천원, 거봉은 상품 2kg 상자에 8,500~9,500원으로 전망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8. 22.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8/22)	2주일전 (08/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6,000	36,000	36,200	39,800	41,433	↓ 9.5	↓ 13.1
	콩(백태)	35kg	152,000	152,000	152,000	137,000	185,800	↑ 10.9	↓ 18.2
	고구마(밤)	10kg	29,600	31,000	27,320	28,150	29,650	↑ 5.2	↓ 0.2
	감자(수미)	20kg	22,800	21,000	19,200	25,500	26,113	↓ 10.6	↓ 12.7
채소류	배추(고랭지)	1kg	1,780	1,120	-	690	958	↑ 158.0	↑ 85.8
	양배추	10kg	6,600	5,000	5,200	6,950	8,237	↓ 5.0	↓ 19.9
	오이(다다기계통)	10kg	41,000	32,667	21,133	21,667	34,411	↑ 89.2	↑ 19.1
	애호박	8kg	14,200	21,400	12,120	10,350	20,480	↑ 37.2	↓ 30.7
	토마토	10kg	17,800	18,200	16,560	20,100	22,233	↓ 11.4	↓ 19.9
	당근	20kg	47,600	36,600	29,880	29,800	35,800	↑ 59.7	↑ 33.0
	건고추(화건)	60kg	570,000	640,000	670,000	795,000	803,000	↓ 28.3	↓ 29.0
	풋고추	10kg	75,000	37,000	44,320	22,800	35,907	↑ 228.9	↑ 108.9
	마늘(깐마늘)	20kg	132,000	133,000	138,600	131,000	105,533	↑ 0.8	↑ 25.1
	양파	20kg	16,600	16,200	14,320	28,100	17,827	↓ 40.9	↓ 6.9
	대파	1kg	2,100	1,920	1,492	1,940	1,599	↑ 8.2	↑ 31.3
	파프리카	5kg	21,000	22,800	13,160	14,250	25,173	↑ 47.4	↓ 16.6
	멜론	8kg	22,000	21,600	19,120	16,800	21,809	↑ 31.0	↑ 0.9
	방울토마토	5kg	16,600	16,200	14,480	13,700	15,980	↑ 21.2	↑ 3.9
	수박	1개	25,000	16,800	15,240	15,450	16,750	↑ 61.8	↑ 49.3
과일류	사과(후지)	10kg	40,200	40,200	38,800	44,700	56,308	↓ 10.1	↓ 28.6
	배(신고)	15kg	54,800	55,800	53,640	31,250	53,813	↑ 75.4	↑ 1.8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8/22)	2주일전 (08/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50,000	540,000	537,200	531,500	551,600	↑ 3.5	↓ 0.3
	느타리버섯	2kg	15,000	13,400	13,880	13,500	14,567	↑ 11.1	↑ 3.0
	새송이버섯	2kg	7,600	7,200	7,320	7,400	7,880	↑ 2.7	↓ 3.6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977	7,762	7,833	7,189	6,604	↑ 11.0	↑ 20.8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19	2,085	2,130	2,250	2,058	↓ 10.3	↓ 1.9
	닭고기	1kg	5,304	5,554	5,291	5,099	5,870	↑ 4.0	↓ 9.6
	계란(특란)	30개	5,442	5,422	5,269	5,773	5,802	↓ 5.7	↓ 6.2
	우유	1리터	2,548	2,548	2,549	2,547	2,385	-	↑ 6.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8. 22.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961 천원	5,818 천원	5,543 천원	↑ 2.4	↑ 7.5
	거세	6,918 "	6,988 "	6,904 "	↓ 1.0	↑ 0.2
송아지 (6~7월)	암	2,969 "	3,000 "	2,656 "	↓ 1.0	↑ 11.7
	수	3,931 "	3,879 "	3,240 "	↑ 1.3	↑ 21.3
육우(600Kg)		3,226 "	2,977 "	3,475 "	↑ 8.3	↓ 7.1
젖소수송아지(7일령)		394 "	394 "	264 "	- 0	↑ 49.2
돼지(110kg)		429 "	432 "	446 "	↓ 0.6	↓ 3.8
육계(원/kg)		2,169 원	1,707 원	1,213 원	↑ 27.0	↑ 78.8
계란(원/특란10개)		1,089 "	1,015 "	1,209 "	↑ 7.2	↓ 9.9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0	↓ 28.5

※ 한우(거세우) 생산비 : 7,257천원/마리 (△339) * (5,658 - 2,332 + 3,931 = 7,205)
 ('15년 생산비) ('15년 송아지 가격) (현재 수 송아지 가격)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방풍 초콜릿' 관광객 입맛 사로잡는다

- 특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소비확대 위해 방풍 초콜릿 개발, 출시 -
- 다도해 청정해풍을 맞고 자라 향긋하고 씹싸래한 맛이 일품인 여수 금오도 방풍이 달콤한 초콜릿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소비확대를 위해 가공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온 여수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방풍을 이용해 관광상품 '여수 방풍 초콜릿'을 개발, 출시했다.
- '풍을 예방한다'하여 이름 붙여진 방풍(갯기름나물)은 뿌리는 한약재로 있는 나물로 이용한다. 여수에서는 전량 잎채소로 생산되며, 전국 재배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산지이나 연중 적정가격 유지와 판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에 시는 농가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가공제품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방풍 초콜릿 제품개발에 나서 최근 본격 출시했다.
- 이번에 개발된 방풍 초콜릿은 수차례 시험테스트를 거쳐 방풍 분말과 초콜릿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냈다는 평을 듣고 있다.
- 특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시장에 진입한다는 취지로 여수를 대표하는 21개 관광명소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 출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 순천시, 하늘아래 첫 쌀 ‘순천햅쌀’ 판매 개시

- 순천시는 ‘하늘아래 첫 쌀 순천햅쌀’이 22일부터 전국의 소비자들을 찾아간다고 밝혔다.
- ‘하늘아래 첫 쌀 순천햅쌀’은 순천 벼 조기 재배단지 115ha에 조생종 품종(고시히까리)를 지난 3월 11일 모내기 한 이후 130일만으로 전국에서 첫 수확한 쌀이다.
- 순천지역은 조기햅쌀 생산을 위한 적합한 기후조건과 유기물이 풍부한 순천만 간척지의 기름진 토양, 상사호의 맑은 물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순천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 순천농협, 별량농협, 순천시의 축적된 재배기술은 순천햅쌀을 57년 전통의 전국 최고의 조기햅쌀로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조기햅쌀 명품단지에서 생산되는 하늘아래 첫 쌀 순천햅쌀’은 추석 명절 조상의 제례상에 올리는 제수용으로 인지도가 높으며, 특히 품종(고시히까리)개량으로 밥맛이 좋아 대도시 소비자로부터 추석 선물로 인기가 높고, 생산수량이 많지 않아 조기 판매가 예상된다.
-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쌀 농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햅쌀 품질관리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순천시

■ 광양시, 고품질 매실 생산 위해 전정기술지원단 운영

- 시와 농가 절반 부담 1억 4천만원 투입, 고령, 여성농업인 등 대상 지원 -

- 광양시는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한 매실과원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매실 정지·전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는 사업비 1억 4천만원(시비 7천만원, 농가부담 7천만원)을 투입하고 30명의 전정기술지원단을 구성해 고령, 여성농업인, 일손 부족 농가를 중점 대상으로 규모 100ha 전정사업을 실시한다.
- 이번 사업은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2개월간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 9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통보하고 11월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 시는 농가당 전정기술지원단을 최고 10명까지 지원하며, 1인 1일 인건비 14만원은 시와 농가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 전정기술지원단은 사업 추진에 앞서 10월 중 정지, 전정 연시교육과 정보교환, 읍·면·동별 전정일정을 마련하고, 11월에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해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상호 매실원예과장은 이번 매실과원의 정지·전정사업으로 고품질 광양매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이와 더불어 농업인과의 간담회, 각종 영농교육 등을 실시하고, 새로운 판로 개척과 가공, 홍보 등을 통해 광양이 우리나라 매실의 본고장이라는 위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광양시

■ 갯 수확한 ‘대숲맑은 조기 햅쌀’로 한가위 선물 걱정 끝

- 6억여원의 농가 소득향상 기대 -

- 지난 17일부터 생태도시 담양의 명품 농산물, ‘대숲맑은 조기 햅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담양군에 따르면, 봉산면 삼지리 김덕수씨 농가 햅쌀단지 0.6ha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대숲맑은 조기 햅쌀 단지’ 90농가 74ha에 대한 수확에 들어간다.
- 이번에 수확한 품종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전남1호 조명벼의 조생종으로 냉해에 강하고 밥맛이 매우 뛰어나며 올해 498여톤의 쌀이 생산되어 농가에서는 6억여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군은 그동안 금성농협 공동육묘장을 이용해 조기에 육묘를 실시하고 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조기 햅쌀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또한 햅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묘판과 새끼우렁이 등 농자재를 지원해 왔다.
- 이번에 생산된 햅쌀은 금성농협 RPC에서 전량 산물벼로 수매한 후 소포장(5, 10kg) 단위로 가공해 전국 롯데마트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으로, 한가위를 한 달여 앞두고 벌써부터 구매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대숲맑은 햅쌀이 전국 소비자의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유통, 판매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담양군



■ 고흥군, 전국 최초 무인기(드론) 이용 무상방제 실시

- 농약살포용 드론 실증, 보급사업 일환, 32농가 혜택 -

- 9월말까지 폭염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안전건설과장을 팀장으로 4개반 20명의 T/F팀을 구성하여 폭염대비 대응 추진상황 지도 점검 및 지원활동은 물론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 간 체계적 역할 분담으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 이번 무상방제는 16개 읍·면별 2농가씩 벼 재배농가 중 노동력이 부족한 노령자 및 부녀자 등 32농가를 대상으로 18, 19일 2일 동안 농가가 원하는 방제 희망날짜에 무상 병해충 방제작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 군은 이번 방제활동으로 드론 보급 기종의 실효성과 경제성을 입증하는 실증시험을 농가들에게 선보여 보급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 이번 무상방제 실시는 지난 국내 기업인 유콘시스템(주)과 체결한 농약 살포용 드론 실증, 보급사업 협약(MOA)에 따른 것으로, 군에서는 드론 확대보급을, 유콘에서는 AS센터 및 교육장 설치, 기업 이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이에 따라, 군은 올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10대를 보급하기 위한 실증차원에서 유콘시스템이 직접 병해충 방제에 나서며, 농가 드론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약살포용 드론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실증과 함께, 조종교육 등을 거쳐 농가에 보급, 활용토록 하여 농가 단위 실효성과 경제성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고흥군

장흥군, 가뭄과 사투... 농업용수 비상급수

-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흥군이 농작물 가뭄 해갈에 발 벗고 나섰다.
- 장흥군(군수 김성)은 지난 16일 오전 대덕읍 내저마을과 관산읍 산서마을을 방문해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긴급 농업용수 공급을 실시했다.
- 현장방문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곽태수 군의회 의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 마을주민으로 부터 가뭄 피해상황을 전해 듣고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 군은 벼논에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인 6월에서 8월 초까지의 강우량이 평년 대비 40% 수준으로 극심한 용수 부족현상을 겪자 지역 사회단체와 공무원까지 동원해 긴급 물대기에 나서고 있다.
- 지난 10일부터는 가뭄 우심지역인 대덕읍 내저마을 농경지 12.9ha에 살수차, 레미콘 등을 동원하여 6,880톤의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다.
- 김성 군수는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뭄에 취약한 지역의 농업 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4억원을 투입하여 내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여 농업용수 부족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김 군수는 이어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관산읍 산서지구 현장을 방문해 “부안저수지 용수공급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 공사와 협의하는 등 농작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장흥군

강진군, 벌 타액 이용한 프로폴리스 방제

- 강진 병영면 친환경연구회 벼농사에 적극 활용 친환경 확대 -
- 강진군 친환경 농가들이 벌 타액을 이용한 방제를 통한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 강진 병영면 친환경연구회는 프로폴리스를 이용해 벼농사에서 발생하는 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실천에 옮겼다.
- 8농가가 10ha에 벼 출수기에 맞춰 물과 프로폴리스를 200배로 희석해 1차 방제를 하고 이후 10일 이내에 2차 방제를 통해 균을 미리 잡음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했다.
- 이는 경쟁력 제고와 함께 다른 친환경농가가 사용한 친환경 자제와 비교했을 때도 우수하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가들은 프로폴리스를 활용한 친환경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프로폴리스’는 벌들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나무의 수액, 꽃 등에서 모은 화분과 벌 자신의 타액을 이용해 만든 항산화 물질로 벌들이 드나드는 출입구나 틈이 난 곳에 발라 외부로 부터 세균의 유입을 막는 봉산물이다.
- 강진군은 올해부터 일선 농업인상담소장이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이용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실증 시험을 통해 우수성이 입증되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 정착시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출처 : 강진군

■ 전남도, 영암 뽕은감 가공산업 활성화 나선다

- 전국 최초 뽕은감 조청사업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 8억원 지원 -

- 전남도는 현재 생과와 말랭이 위주로 유통되고 있는 뽕은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고자 영암 금정농협이 산림청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8억원을 받게 되었다.
- 전남도에 따르면 뽕은감 주산지인 영암군에서는 937개 임가 중 887ha의 재배지에서 연 1만 5천톤을 생산하고 있어 생산량 급증과 일시출하에 따른 수매시설 부족으로 저장시설 추가확보와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됐었다.
- 2009년부터 뽕은감 유통센터를 운영해 온 영암 금정농협이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생산량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매 확대를 통한 감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저온저장 창고 규모를 확대하고, 조청과 퓨레, 감염료 등 새로운 가공상품으로 감 소비를 확대하고 나섰다.
- 가공시설 확충 후 조청 10, 꺾감 15, 감말랭이 10톤 등을 생산해 전국 농협과 쇼핑몰(www.kjnh.co.kr/shopping)을 통한 판매에 주력하고, 천연염색제인 감 염료도 30톤을 생산해 염색체험 교실을 운영하게 된다.
- 또한,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설탕대체물 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에 있다는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분석결과에 따라 국내 유통망의 안정화 후 미국 등 해외 수출을 통해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골드키위 수출규격품 생산, 현장 맞춤형 컨설팅

- 순천 골드키위 수출작목반 농가 포장에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19일 순천시 낙안읍 용능길 이상윤 농가포장에서 골드키위 수출작목반 회원 및 수출 희망농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드키위 수출규격품 생산기술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날 컨설턴트로는 순천대 고영진 교수, 농업기술원 조운섭, 마경철 박사가 참여해 골드키위 수출규격품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농약 안전사용 등에 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수출관련 정보교환이 이뤄졌다.
- 수출 대상국 확대 및 수출용 골드키위 규격품 생산을 위해서는 재식거리 확보, 봄철에 실시하는 유인 및 적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과감한 적과가 이루어져야 수출용 규격품 생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 순천 골드키위 수출단지 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에서 육성한 골드키위(해금) 재배기술을 적극 지원하여 전년도에 일본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로 첫 수출이 이루어졌다.
- 농업기술원 차성충 기술보급과장은 수출경영체들의 현장애로 사항을 조기에 해결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수출 대상국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규격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등 현장맞춤형 전문컨설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화순군, 기업 베트남 진출 길 열려

- 베트남 유통, 물류기업과 수출·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관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베트남 유통전문 기업 sx-tm-xnk-hoang vu 유한회사(대표 옹인철), 물류 유통 전문 기업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대표 박재억)와 화순군, 베트남 간 물류·유통 및 수출·입에 관한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sx-tm-xnk-hoang vu 유한회사는 베트남 호치민에 본사를 두고 캄보디아·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베트남 전국 200여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유통 및 물류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종합 유통 물류기업이다.
-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는 운송 및 운송관련 사업에 전념, 국내 물류 사업을 선도해 온 부산 소재 기업이며,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 동남아시아권 물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업무협약에 이어 협약체결 후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9개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 또한 동면 무포리 소재 홍삼가공업체 (주)고려홍삼공사, 동면농공단지 도자기 제조업체 (주)인스나인 및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입주 기업 (주)바이오에프디엔씨 등 5개 업체를 직접 방문, 설비 및 제품 생산과정을 견학했다.

* 출처 : 화순군

올해 수확한 국산 배도 호주 수출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해도 국산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호주로 배 수출을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 단지로 등록한 후 호주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현재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단지는 상주·나주·하동 3개 단지이다.
- 호주는 작년 한국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산 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천안·안성 지역에 화상병이 발생하여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은 그동안 불확실한 상태였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에도 국내 화상병 발생 상황과 방제현황을 호주 측에 제공하고, 국산 배를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왔다.
-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우리나라에서 화상병 발생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고 박멸 및 예찰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화상병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현지 조사 없이 인정하고, 상주·하동·나주 지역 수출단지는 작년과 동일한 요건으로 한국산 배 수출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알려왔다.
- 호주 배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단지 뿐 아니고 상주·나주·하동 지역 전체에 대한 화상병 무발생 입증에 위한 지속적인 예찰 실시와 결과 제공이 필요하다.
- 검역본부는 관계자는 해당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김제 지평선배, 올해 첫 수출길 올라

- 조생종 원황 품종 14톤 캐나다 수출 -

- 올해 첫 수확한 김제 지평선배가 캐나다 수출 길에 올랐다.
-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 지평선배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배 14톤이 지난 12일 캐나다로 향했다. 수출품종은 조생종 원황으로 당도 13°Brix다. 이 품종은 신고배보다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다.
- 조기문 김제시청 유통식품과장은 “우수한 품질의 배를 수출함으로써 내 고장 특산품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지평선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한편 배는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아 기관지 관련 질병에 도움이 되며 배설효과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 폐와 심장에 좋으며 예부터 기침 감기에 배와 꿀을 함께 달여 마셨던 선조들의 민간 요법은 아직까지 가정에서 이어지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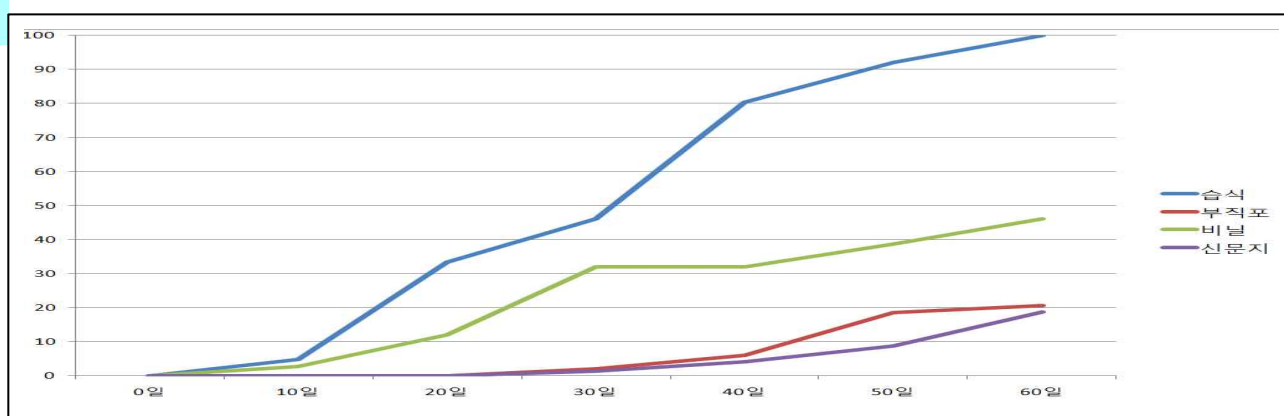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절화작약 건식 저장과 보존제 처리방법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절화 작약의 장기 저장을 위한 건식 피복방법
 - 신문지 피복에서 부패율이 낮고 60일간 저장 가능
- 장기 저장 절화작약의 절화 보존제 처리방법
 - 크리잘프로3 0.5% 용액으로 처리하였을 때 절화수명 5일, 화폭은 1.7cm 증가
- 절화작약 저장기간에 따른 피복제별 부패율 (2015)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절화수국의 인위적 화색조절로 시장 수취가격 향상
- 경제성 분석 (10a기준)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비용 : 1,055,3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제 2kg : 100,000원 - 저장고 사용비용(전기 등) : 30,000원 - 신문지 및 피복 노동력 : 150,000원 - 부패손실(20%) : 775,350원 - 계(A) : 3,876,7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취가격 향상 : $1,723\text{원}^1 \times 2,250\text{속}^2 = 3,876,750\text{원}$ ¹ aT 화훼공판장 5월과 7월 하순 평균 수취가 차 ² 절화작약 10a당 생산량의 50% 저장 - 계(B) : 1,055,350원
○ 추정 수익액(B-A) = 3,876,750원 - 1,055,350원 = 2,821,400원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절화용 작약에 적용 가능하며 저장용 작약을 개화직전에 수확하여 잎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로 피복하여 지면에 수평이 되도록 한 후 저온 저장고 온도를 0℃로 하여 저장함
- 출하 직전 크리잘 프로 3을 0.5%로 희석한 보존액으로 물을림 후 출하
- 작약 피복제별 장기저장 특성 및 보존재 별 개화특성 (2015)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재신, 기광연, 윤봉기

■ 비파 대방 품종의 자반증 예방을 위한 봉지씌우기 효과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봉지 종류와 수관상부 차광막 설치에 따른 자반증 발생률 (2015)

구분	신문 노루지	이중 노루지	백색 반투명	이중 착색	노랑	수관상부 55%차광	무처리
자반증 발생률(%)	8	9	41	0.3	8	12	60
비고						-	-

□ 개발기술 기대효과

- 비파 대방품종의 적과 후 이중착색 봉지 씌우기로 자반증 발생을 예방하여 안정적인 고품질과 유지로 농가 소득 증대와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만족도 향상

○ 경제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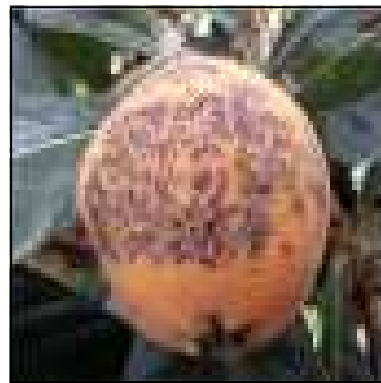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지구입비 : 50원×2,667장=133,350원 - 2인 인건비 : 93,000원×7일=651,000원 - 계(A) : 784,3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과 증수 : 1,000개×1,667원=1,667,000원 ※ 30,000원(1kg/18과) : 1개당 1,667원 (1톤/10a 생산, 1,667개/10a, 60g 기준) - 계(B) : 1,667,000원
○ 추정 수익액(B-A) = 882,650원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2월 말 이중착색 봉지를 씌우면 자반증 발생률을 60% 낮출 수 있음



〈상품과〉



〈자반증발생과〉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이소미, 박문영, 조운섭, 조혜성

■ 벼 조기재배 수확시기 앞당겨야 품질 우수

- 우리 도 조기재배 벼 수확시기 8월 25일 전후가 적당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올해의 빠른 추석에 맞추어 햅쌀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4월 하순경에 이앙한 조생종(조명·조평) 벼는 8월 25일 전후에 수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추석 대목에 햅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새로운 시장 발굴, 선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14,237ha를 재배중인데 우리 도 전체 벼 재배면적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 특히 우리 도 최초로 육성한 조명벼(전남1호)는 조생종 품종으로 수발아(아직 수확하지 않은 이삭에서 벼알에서 싹이 트는 것)에 강하고 밥맛이 우수하여 소비자에게 “입안에 머금고 싶은 햅쌀”로 판매되어 햅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조명벼’는 밥맛이 좋은 ‘고시히까리’와 재배 안정성이 높은 ‘온누리’를 교배한 후 약배양하여 육성한 품종으로 지난 2년간 농가실증 재배를 통해 수확량과 병해충 저항성이 입증되었다. 특히, 밥맛이 우수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아 현재 약 1,100ha에서 재배하고 있다.
- 한편 올해 조생종 품종들의 이삭 피는 시기는 평년에 비해 3~4일 정도 빠르다. 일반적으로 온도에 감응하는 조생종은 이앙부터 출수까지 평균 적산온도가 1,560℃ 전후인데 올해 평년보다 112℃가 높아 예년보다 빠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특히, 보통기재배에서 조생종 품종의 경우 이삭이 팬지 52일에 수확해야 하지만 조기재배에서는 30℃ 이상의 높은 온도조건에서 출수되기 때문에 벼가 빨리 익으므로 이삭이 팬지 45일 경에 수확하는 것이 분상질립과 싸라기가 적어 쌀 외관특성 및 밥맛을 좋게 한다.

- 전남농기원 식량작물연구소 이인 박사는 “올해처럼 빠른 추석에 소비자의 식탁에 햅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벼 수확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건조, 가공 및 유통을 감안할 때 늦어도 8월 25일 전후에 수확이 이루어져야 산지 쌀값도 높아 농가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우리 쌀의 진화, 맛있는 쌀! 건강에 좋은 쌀!

- 농촌진흥청, 용도별 맞춤형 쌀 품종 개발... 쌀 소비 확대 기대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산업에 대한 가치 인식을 확산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지정, 쌀미(米) 자를 분해할 경우 八十八(8,10,8)이 되고, 쌀을 생산하려면 여든 여덟 번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줄어드는 쌀 소비를 확대하고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밥맛 좋은 쌀, 가공식품 만들기 좋은 쌀, 기능성분을 높인 쌀 등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 최고품질 쌀은 쌀알 가운데(심백)와 쌀 옆면(복백)에 하얀 반점이 전혀 없고 일품 이상의 밥맛과 도정수율이 75% 이상(완전미 도정수율은 65% 이상)이면서 벼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2개 이상에 저항성을 가져야 한다.

- 현재까지 육성된 최고품질 쌀은 삼광·운광·고품·호품·하야미·해담쌀·청품 등 15품종이다. 특히, 고품·삼광·호품은 일본의 ‘고시히카리’ 등 외국 품종보다 밥맛이 더 월등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 술, 국수, 빵 등을 만들기 좋은 가공용 쌀 품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전통주 중심이던 쌀 가공제품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가공용 쌀로 만든 제품>



파스타 (품종 : 새미면)



쌀빵 (품종 : 삼광)



현미차 (품종 : 삼광, 큰눈)

- ‘설갱’은 매우 부드럽고 잘 으깨져 누룩균이 잘 달라붙고 번식도 왕성해 맛과 향기가 좋은 술을 만들 수 있는 품종이다. 경기도 대형 주류업체는 8종의 제품에 ‘설갱’을 사용하고 있다. 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해 농가는 안정적인 수익을, 산업체는 품질 좋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 ‘고아미’는 면을 만들었을 때 탄력이 좋은 쌀국수용 품종이다. 충남의 한 쌀 가공업체는 ‘고아미’를 이용해 쌀 함량 90%의 국수와 50%인 설령탕 사리면을 개발해 월 100톤가량 쌀국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 최근 개발한 ‘새미면’ 쌀은 파스타 전용 품종이다. 파스타 제조 기술을 이전받은 경남의 한 산업체는 쌀·현미파스타 등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 이외에도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산업체와 함께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적게 들어간 빵이나 아이스크림, 피자, 소시지 등 고부가가치 쌀 가공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이 가미된 건강에 좋은 쌀이 각광을 받고 있다.
- ‘조생흑찰’은 위염균 독소 단백질 발현을 억제해 위염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이다. ‘홍국쌀’은 상주찰벼에 붉은 누룩곰팡이인 홍국균을 접종해 발효한 쌀로 주요 기능 성분인 모나콜린K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함량을 높이고 해로운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춘다.
- ‘눈큰흑찰 1호’는 배아인 쌀눈이 다른 쌀보다 큰 것이 특징인데, 쌀눈에는 뇌 혈류개선과 뇌세포 대사기능을 촉진하는 가바(GABA)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건양2호’는 글루텔린 함량이 10% 이상 낮아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노약자나 단백질 섭취가 제한되는 신장병 환자의 식이요법에 적합하다.
- ‘적진주찰’은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항암, 항균 작용을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기능성이 강화된 쌀들을 식의약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이나 병원과 동물실험, 임상시험 등 추가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기능성 쌀 (품종 : 홍국쌀)

멀티콥터(드론), 콩 병해충 방제 해결사 역할

- 농업용 멀티콥터(드론) 콩 방제기술 현장연사회 개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콩 병해충 방제에 멀티콥터(드론)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 들녘에서 8월 19일 농업인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멀티콥터 방제 연사회를 (주)나라항공기술의 협조를 받아 개최하였다.
- 이날 연사회는 전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이 공동으로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콩 최대생산 및 생산비 절감 모델실증”에서 전체 노동력의 20% 정도 점유되는 병해충 방제 노력을 1% 이하로 줄이고자 실시하였다고 한다.
- 전국에서 콩 재배에 생력화가 가장 잘된 서남부지역에서도 병해충 방제(3~4회) 노력에 ha당 28시간이나 투입되고 있으나 멀티콥터를 이용할 경우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어 안정성과 방제효과 등을 연시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동관 연구관은 멀티콥터 활용 콩 병해충 방제는 2~3년 내에 대중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농업인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성 확대 방안 검토와 기술 지도를 서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노지고추 유인망 재배로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량은 늘리고

-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고추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노지고추 유인망 재배기술을 선보여 농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기존 노지고추 재배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대 설치하고 농업용 나이론 줄로 묶어 유인하는 등 노동력이 많이 들며 고추 가지를 모아서 묶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통기성 및 투광성이 떨어져 이로 인한 병 발생 증가와 농약방제 효과의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센터에서 보급한 유인망 재배는 기존 지주대와 유인줄 대용으로 사용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기존 대비 노동력은 1/3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고추들 사이의 통기성 및 투광성이 높아져 병 발생이 경감돼 수량이 15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령화되는 농촌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다수확 고추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당진시농업기술센터



■ 한입에 쏙! 작은 사과 루비에스를 소개합니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한 입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은 사과 새 품종 ‘루비에스’의 보급 확대를 위해 17일 사과연구소(경북 군위군)에서 현장평가회를 개최하였다. 평가회에서는 ‘루비에스’의 나무 자람세를 살펴보고, 적절한 대목 이용과 결실 관리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달린 과일의 수량성과 과일 특성을 평가한다.
- 그동안 국내 시장에 유통된 작은 사과는 일본 품종인 ‘알프스오토메’가 유일했다. 그러나 익는 시기에 낙과가 많고 수확한 과일이 금방 푸석거리며 짧은맛도 조금 있다.
- ‘루비에스’는 ‘알프스오토메’의 단점을 보완, 개발해 앞으로 작은 사과는 ‘루비에스’로 대체해 재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루비에스’는 8월 하순에 익으며, 무게가 90g(보통 사과 크기 270~300g)정도 이고 탁구공 크기만 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이나 나들이용으로 좋다. 2004년 ‘알프스오토메’ 품종에 ‘산사’ 품종을 교배했으며, 2014년 최종 선발해 2015년에 품종 출원했다.
- ‘루비에스’는 알프스오토메에 비해 과일 크기가 50g 정도 더 크기 때문에 먹을 부분이 많고, 당도는 높고 산도가 낮아(당도 13.9°Brix, 산도 0.49%) 맛이 더 좋다.
- 특히, 탄저병에 강하고 수확 전 낙과가 거의 없어 과일이 나무에 오래 달려 있어야 하는 관광농원에서도 선호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온에서 50일 이상 유통이 가능할 정도로 저장성도 좋다.
- ‘루비에스’는 현재 38개 묘목업체에서 증식하고 있어 올 가을부터 묘목 구입이 가능하다.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학교 급식, 기내식, 나들이 등의 새로운 수요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축산연구소, 최소 사육기반 조성에 본격 나서

- 동결보존 기술을 개발, 동결정액 농가 보급 추진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도내 최소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최소 동결정액 생산,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소는 조선시대 “우의방전서”에 의하면 세로무늬 줄이 있는 소라고 기록되어 있고, 적갈색 바탕 털에 세로로 그어진 호반무늬 털로 인하여 “최소”라 불리었다.
-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 한우 심사표준을 황갈색 품종으로만 한정된 이후 최소의 개체수가 급감하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멸종위험 품종으로 등록된 희소 품종이다. 현재 전남 도내 최소는 12농가에서 328두를 사육(전국 240농가, 3,781두)하고 있다.
- 축산연구소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과 함께 지난 4월 도내 최소 사육현황 조사 후 최소 관리시스템에 개체정보 등록을 완료하고, 개체수 증식 방안으로 동결정액 생산,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친자감별을 통해 근친방지를 적극 지원하는 등 개체수 증식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동결정액 기술의 핵심인 동결, 융해 기술을 축산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하여 정액의 생존율(80%)과 활력도(67%)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동결정액 제조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 보유기관으로 인정받았다.
- 박상국 축산연구소장은 “최소 동결정액 생산 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 하는 한편 타 시·도 최소 사육기관간 동결정액 교류를 통해 자질이 우수한 유전자원 보존과 농가 공급을 확대하여 최소 사육기반을 넓히는 등 최소 산업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해피굿팜 운영 교육 실시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8월 17일에 농산물 직거래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피굿팜 쇼핑몰 운영교육을 실시하였다.
- 해피굿팜은 온라인에서 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전남농기원에서 2005년에 개발한 시스템이다. 구성은 농장 개별단위로 운영되는 120개의 농장 홈페이지와 농장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통합해서 판매하는 쇼핑몰(shop.goodfarm.net)로 되어 있다.
- 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개발, 적절한 가격전략 등의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나 농업인들이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더욱 더 필요하다. 이날 교육에서는 소비자를 한눈에 잡을 수 있는 상품 설명 페이지 및 고객관리 기술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 전남농기원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연구사는 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작 및 팜파티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2016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중간평가회 개최

- 토마토·한우·오리 등 4개 협력단 추진성과 발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18일 대학교수,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평가회를 개최했다.
-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자가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전남지역에서 육성하는 지역 전략품목은 토마토·한우·오리·쌀이며 대학교수, 선도농업인, 농업 관련산업체 등 109명의 기술전문위원이 일선현장에서 종합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 전남대학교 이정현 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는 토마토산학연협력단은 ICT 복합환경 제어기술 지원으로 토마토 품질 10~20% 향상과 생산비 20%를 절감하고, 관광과 체험을 융합할 수 있는 팜파티 마케팅, 토마토 글로벌 GAP 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 한우산학연협력단은 한우농가 생산비의 50%를 차지하는 사료비 감소대책으로 농식품 부산물 및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생산비 절감 방안을 농가에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 또한, 오리산학연협력단에서는 오리사 약취저감을 위한 복합생균제 개발품 농가보급 및 유용곤충 기반 오리전용 사료개발과 농가실증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쌀산학협력단에서는 쌀소비 감소와 과잉생산에 따른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도시어린이 모내기 체험, 쌀 파스타, 누룽지 등 가공품 개발, 2016년 국제뿌리산업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차성충 과장은 “이번 중간평가회는 협력단별로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으며, 이후 협력단별로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성과, 사례 등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7. 정책 동향

◆ 전남도, AI 청정지역 유지 방역관리 강화

- 18일 국내 청정화 선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시행 -
- 전남도가 18일자로 국내 고병원성 AI 청정화 선언에 따라 청정지역 지속유지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 그동안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해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 우선, 질병 발생의 사이클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위험시기인 5월 말까지 병아리를 한꺼번에 입식하고 한꺼번에 출하하는 일제 입식-출하(All in-All out) 시스템을 적용했고 가든형 식당 등 취약지역 571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 또 공동방제단 87개반을 동원해 소규모 가금 사육시설 등에 대한 소독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위해요소 제거에 집중해 왔다.
- 앞으로도 AI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통시장 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취약대상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계열화 사업자 방역관리 실태 점검 등 책임방역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 이와 함께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업계의 고병원성 AI 방역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내 AI 집중발생지역 맞춤형 방역지도,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김영란법 관련 농업축산분야 대책 마련

- 농협, 한우협회, 행정 등 관련 분야 의견 수렴, 대정부 건의 등 -

- 전라남도는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시행'으로 도내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코자 한우협회 전남도지회장 등 관계관이 최근 T/F팀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렴도 향상과 국가 신임도 상승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충분히 공감하나, 청탁금지법에서 음식비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한우·인삼 등 주요품목의 경우 국내산의 소비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들은 또 관련 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또는 명절 선물소비가 많고 품질이 고급화되어 있는 한우 등 일부 품목만이라도 법 적용을 제외해 줄 것과 음식비 및 선물가액의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한우 적용제외를 건의했고, 인삼농협은 인삼의 도내에서 경매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에 인삼수삼센터 설치인 그린화훼영농법인 온실가온에 드는 에너지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 나주배원협은 지역 공판장 활성화, 배 수출국 확대, 농가 경영안정 자금의 무이자 지원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확대, 다양한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 핵가족화에 따른 소포장 상품 개발, 한우사육목표 두수 설정을, 전통주는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제조한 경우는 법 적용 제외 등을 제시했다.

- 도는 농·축산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또는 피해우려 일부품목을 조정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음식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비용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과 5만원 이하의 소포장 상품 개발에 필요한 소포장 추가비용과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 도(시·군)에서는 소비촉진 행사 및 소포장재비 지원 등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농협 등 생산자 단체 및 농가에서도 5만원 이하의 다양한 선물을 제작,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온라인 판매 등 유통비용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일제 공동방제 실시

- 농경지, 산림지, 공원 등 동시 협업방제로 피해 확산 차단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로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확산 차단을 위하여 협업을 통해 전국 일제 공동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미국선녀벌레는 발생면적이 전년 대비 2배 증가 하였으며, 경기·충남·경남을 중심으로 산림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8,116ha 발생하였음
- 갈색날개매미충은 발생면적이 전년 대비 1.6배 증가 하였으며, 충남·전북·전남을 중심으로 산림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11,276ha 발생하였음
- 이들 돌발해충은 이동성이 좋아 산에 있는 아까시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등과 들에 있는 사과·배·콩·인삼 등을 가리지 않고 농경지와 산림지를 오가며 피해를 주고 있어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공동방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농식품부는 전국 일제 공동방제는 성충의 산란시기에 맞추어 2차로 나누어 추진하며, 1차 방제는 8.18.~8.26.까지, 2차 방제는 9.5.~9.12.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효과적인 공동방제를 위해 전국 13개 시·도, 1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892개의 방제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이들 방제구역별로 장비 동원 가능 일정 등에 맞추어 공동방제일을 설정하여 같은 날 동시 방제를 실시한다.
- 아울러, 방제작업은 농경지, 산림지, 공원 등이 포함된 방제구역별로 3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1구역(농경지)은 SS방제기 등을 활용한 방제, 2구역(농경지 인근 산림지)은 무인헬기 등을 활용한 방제, 3구역(산림지)은 항공기를 활용한 종합방제를 추진한다.
- 농식품부는 금번 전국 일제 공동방제를 위하여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이 보유한 SS방제기,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항공기 등 가용장비를 총동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종합적인 방제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금번의 돌발해충 산란 전 방제작업을 소홀히 할 경우 '17년도 발생 증가가 우려되므로 지자체와 농가들의 적극적인 공동방제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 고온, 폭염에 따른 작업자 안전관리와 작물 수확기에 따른 농약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줄 것과 친환경 재배, 양봉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방제작업을 진행하여 피해를 예방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중국 조미료시장을 공략하라

- 건강한 원료 사용 앞세워 간장·식용유 등 진출 유망-

-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상하이지사가 최근 발표한 ‘2016 중국 조미료 업계 발전추세’에 따르면 중국의 조미료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음식과 맛을 중시하는 중국 소비자들이 더 맛있는 밥상을 차리기 위해 조미료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산업 정보망이 집계한 2015년 중국 조미료 시장 매출은 2,951억위안(한화 49조 2,344억 8,400만원)으로 이는 지난 2011년(1,837억위안, 30조 6,485억 800만원) 대비 60.6%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조미료시장의 연평균 성장세는 13%를 기록했다.
- aT 상하이지사는 앞으로도 중국 조미료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수출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조미료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간장과 과일식초의 진출이 유망하다고 전했다. 중국의 조미료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이 간장과 식초인데, 최근 들어 다양한 맛과 향이 첨가된 간장 및 식초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 이와 함께 aT 상하이지사는 우리 식용유의 진출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중국의 대형 식용유 제조회사가 이른바 하수구 식용유를 팔아온 사실이 보도되면서 수입 식용유를 찾는 현지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제품의 세련된 디자인과 건강한 원료사용, 현대화된 제조공정 등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프리미엄 식용유로 포지셔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 대만 내 한류 인기…한식과 K-Food 뜀다

- 매운 라면·순두부 등 외식프랜차이즈 속속 진출… 한국산 식품 인기 상승 -

- 대만에서 한류 영향으로 우리 농식품과 한식에 대한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 대만의 유통 및 외식업계에 따르면 케이팝(K-Pop)과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들이 현지에 속속 진출하면서, 우리 농식품에 대한 대만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한류 인기는 우리 농식품의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 라면·스낵 등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현지 바이어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대만 진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일례로 우리 라면은 세련된 디자인과 색다른 맛 덕분에 현지에서 인기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 스낵도 대만에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 중인데, 빼빼로, 카스타드, 오예스, 예감 등은 현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활발히 판매되며 인지도가 높은 상품군에 속한다.
- 대만에 진출한 외식 프랜차이즈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현지에 진출한 주요 한식 프랜차이즈로는 'LA 북창동 순두부'와 '틈새라면' 등이 있다. 특히 LA 북창동 순두부는 대만에 진출한 우리 외식 프랜차이즈 중 가장 인기가 높은 브랜드로, 대만 지역에서 15개의 가맹점을 보유 중이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프랑스, 원산지표기법 의무화

- 프랑스는 지난 7월 26일 자국 헌법재판소를 통해 우유 및 육가공 식품의 원산지표기법(COOL)의무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 프랑스 농림부 장관(Stephane Le foll)는 원산지표기법은 소비자들에게 우유 및 육가공식품의 품질 및 제조과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관계자들은 소비자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원산지표기법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우유와 육가공식품에 적용할 구체적인 함유량 및 기준치를 논의하고 있다.
- EU집행위원회는 EU의 일부 식품 및 낙농업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산지표기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반면 일부 농업단체들은 원산지표기법의 의무화는 국내 제품 소비를 장려할 것이며, 이는 각 지역의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 프랑스에서 원산지표기법 의무화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EU보건위원회 집행위원(Vytenis Andriukaitis) 또한 이미 자발적으로 원산지표기법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올해 초 진행된 투표에서 대부분의 유럽의회의원은 우유 및 육류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기법을 찬성하였으나, 유럽의회의 최대 정당인 유럽국민당(EPP) 측은 이러한 움직임은 비현실적이며, 대중적 선호를 얻기 위한 선전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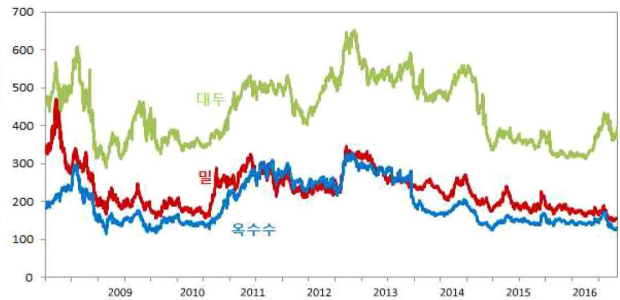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8. 22.(시카고 선물거래소)

연이틀 상승한 곡물 선물 가격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08.18)	전일대비	전월평균 ('16.7)	2015 평균
밀	156.89	▲0.2%	154	186
옥수수	130.70	▲0.5%	135	148
대두	379.26	▲0.2%	390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9월물 대두: 8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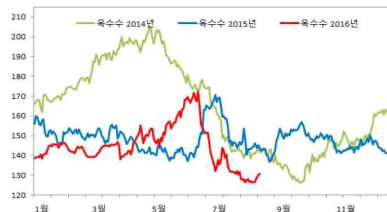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2% 상승 마감하였음. USDA는 목요일 오전 최근까지의 밀 수출 판매량이 489,500톤임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분석가들의 예측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적색 연질밀 가격은 부셸 당 약 2센트 상승한 \$4.23에 마감하였고, 켄자스 시티 상품 거래소의 적색 경질밀 가격은 부셸 당 1센트 하락한 \$4.17에 마감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대두와 밀의 강세로 인해 전일 대비 0.5% 상승하였음. 그러나 최근 기상조건 개선에 따른 수확량 증가로 인해 그 상승폭은 제한적임. USDA에 따르면 구곡 옥수수 수출 판매는 총 167,400톤이었으며 이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함. 신곡 옥수수 수출판매는 1.043백만 톤으로 교역자들의 예상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 당 0.75센트 상승한 \$3.39에 마감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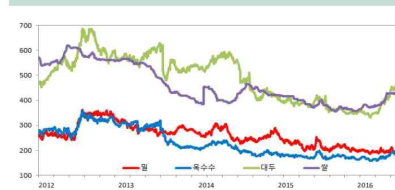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2% 상승하였음. USDA에 따르면 주간 구곡 대두 수출 판매는 177,900톤을 기록하였으며 신곡 대두 수출 판매는 1.598백만 톤을 기록하였음. 두 가지 판매량 모두 시장의 기대치와 비슷한 수준임.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부셸 당 5센트 상승한 \$10.60에 마감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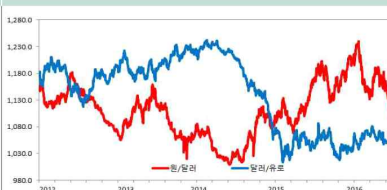
관련동향

- 대두 수출 프리미엄은 높은 수출 수요로 인해 강세를 보임.
- 18일 국제유가는 산유국 생산 공조 기대 상승, 공급과잉 우려 완화, 미 달러화 약세, 주요국 증시 상승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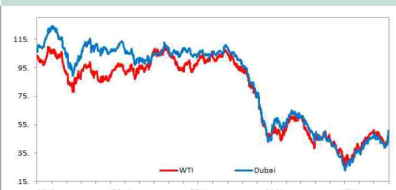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90	환율	원/달러	1,102.3
	옥수수	171		달러/유로	1.1291
	대두	421	국제유가	WTI	48.22
	쌀	408		Dubai	46.65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9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08.17(수출가격), '16.08.18(환율), '16.08.18(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스마트 팜 선배들의 성공노하우를 전합니다!

- 스마트 팜 유형별 선도농가 사례집 발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 팜 선도농가 60곳의 성공노하우와 생생한 조언 등을 담아 『현장에서 전하는 스마트 팜 유형별 선도사례』 책자를 발간했다.
- 이 사례집은 스마트 팜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나 도입 초기의 농가들이 선도농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고자 제작되었으며, 농업인들이 자신의 여건과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도농가들을 품목, 규모, 시설수준에 따라 11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소개했다.
- 농가별 성공요인, 도입장비, 운영 노하우, 스마트 팜을 도입하려는 농가들에 대한 조언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기술
- 농식품부는 이 사례집 2천부를 전국의 시·군·구(215곳) 및 스마트 팜 현장지원센터(10곳) 등을 통해 배포하는 한편, 각종 설명회와 박람회 및 스마트 팜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책자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팜 대표 홈페이지(www.smartfarmkorea.net) 자료실에 전자파일을 게재하고, 책자 홍보를 위한 SNS 이벤트도 전개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맛있게 건강한 쌀 가공식품을 집에서!

- 농식품부, 공영홈쇼핑과 쌀 가공식품 기획판매 협업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공영홈쇼핑(대표 이영필, 채널명 아임쇼핑)과 협업으로 쌀 가공식품 기획·판매전인 “쌀의 변신 - 더 맛있게, 건강하게!”를 통해 쌀 가공식품 홍보와 유통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 쌀 가공식품 기획·판매전, “쌀의 변신 - 더 맛있게, 건강하게!”은 총 10회 편성되며, 8월 19일 방영을 시작으로 29일부터는 매주 월요일에 편성될 예정이다.
- 이번 판매전에서 소개되는 제품은 원료 중 국산 쌀 함량이 50% 이상인 누룽지·즉석밥·전통떡 등의 제품으로 지자체 추천과 전문가 품평회를 거쳐 상품성, 품질 등을 고려해 엄선되었다.
- 농식품부는 선정된 쌀 가공식품 기업에 홈쇼핑 입점을 위한 수수료와 영상제작 등을 지원한다.
- 농식품부 박선우 식량산업과장은 “최근 1인·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쌀로 만들어 건강하면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판매전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 “이번 판매전을 통해 중소 쌀 가공식품 업체는 유통망을 다양화 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전남농업정보

99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